

“2차 공공기관 한 지역에 집중 배치”... 나주혁신도시 청신호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다운홀미팅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식과 관련해 “(지역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토 재배치 문제는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라 흠뻑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나눠 이전하기보다 특정 도시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충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에 에너지가 퍼져나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각 군청 근처에 하나씩 띄엄띄엄할 것이냐를 상상해 보면 후자처럼 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이 너무 분산돼 지방에 가면 공공기관만 따로 놓고 지역과 섞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변을 끌어들이는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전 도시 수를 줄이더라도 한 지역에 여러 공공기관을 모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도 “공공기관 이전은 임직원 정주 여건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분산 배치는 표심을 쫓는 발언일 뿐, 실질적으로 분산 보다는 (기존 혁신도시에) 집중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기존 혁신도시



하늘에서 바라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재명 대통령 “국토 재배치, 흠뻑리듯 할 수 없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혁신도시 집중 배치가 바람직”

신도시인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광주·전남 시·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공공기관을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 통합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 통합이 확정된 광주·전남 지역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중심

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특정 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가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143조 제2항을 삭제

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조문은 “국가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에 혁신도시

를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합특별시 내 다른 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 후보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나주시의회는 해당 조항이 향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될 경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고, 2차 공공기관 집중 배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국회와 정부에 해당 조항 재검토·삭제를 비롯해 기존 혁신도시 기능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동부권, 반도체·수소산업 중심 첨단 신도시로”

김영록, 순천시의회에서 ‘동부권 6대 발전전략’ 발표

“산업 대전환을 통해 석유화학·철강 중심의 전남 동부권을 반도체와 수소산업 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첨단 미래 신도시로 변모시키겠습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6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남 동부권의 6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여수섬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동부권을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관광·MICE 허브로 육성하고 수협 중앙회등 공공기관 유치, 국립현대 미술관 신설 등을 약속했다.

그는 “여수·광양 국가산단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석유화학·철강산업이 탄소규제 등으로 인해 일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저탄소·지능형 산업으로의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광양·순천 일대 RE100 국가산단을 200만평 규모로 확대해 ‘첨단 미래산업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등 동부권을 반도체·이차전지 핵심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특히 광양과 전남 동·서부권을 3각축으로 연결하는 ‘풀 사이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 따라 광양만권을 전 세계 인공지능(AI) 기업 수요에 대응하는 고기능·고용량 첨단 반도체(HBM·HBF) 양산·수출기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부권을 최고의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자 스마트 제조의 전진기지

로 육성, ‘K-배터리 산업’의 핵심 원료 공급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또 전남광주특별시장 3개 추정사 중 하나인 전남 동부청사를 확대 개편해 동부권 주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고 환경관리공단·수협중앙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핵심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첨단 발사장을 갖춘 제2 우주



주센터 유치 등 고흥 나로호 우주센터 일대를 경남 사천, 순천, 광양과 유기적인 생태계로 묶어 하늘과 우주를 잇는 ‘K-우주·방산·항공 벨트’로 키운다는 세 번째 전략도 밝혔다.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여수항 크루즈 터미널을 연계한 MICE 산업과 ‘남해안 경제관광벨트’를 통한 글로벌 힐링·관광 허브로의 육성 계획, ‘순환형 수소트램(순천·광양)’ 등을 활용한 사

통팔달 초광역 SOC 구축 계획도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40년 만에 실현된 국립현대 미술관을 기반으로 서부권과 함께 동부권에 ‘국립현대 미술관’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스템을 갖춰 동부권의 산업재해와 응급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거대한 통합의 뜻을 올린 전남광주특별시는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세계와 당당히 겨룰 대전환의 중심지”라며 “우리 특별시의 심장, 동부권이 단순한 지역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가 되도록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 “대통령이 원하는 혁신 행정이 김영록이 주민 분들과 함께 ‘동부권 6대 발전 전략’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기자

진도에 ‘3.6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한다

2031·2033년부터 세대당 평균 436만원의 바람연금 지급

박지원 의원 “신안에 버금가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기대”

전남 진도에 세계 최대 규모인 신안군과 맞먹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해남·진도·완도) 의원에 따르면 전남 기후에너지환경경부 진도해역 일원 해상풍력 1·2단계 사업(총시설 용량 3.6GW) 모두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3.6GW는 원전 3~4기와 맞먹는 용량으로 총 20조원 이상의 민자가 투자된다.

모인 신안 해상풍력집적화단지(3.7GW)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 공동 접속설비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주도 사업보다 신속하고 추진력이 훨씬 커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업은 20조원 시설 투자에 따른 연쇄적 파급효과와 고용창출은 물론 직접 수익금, 배당금, 지원금만으로도 20년간 총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

형 프로젝트이다.

사업이 시작되면 진도군에 총 4000억원의 수익금(20년간 약 3100억)과 지원금(1회 약 900억)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진도군민에게 투자금을 제외한 직접 배당금으로 총 1조4000억원이 바람연금으로 지급된다. 전체 약 1만7000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 당 평균 연간 436만원, 1000만원부터 100만원 까지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바람연금은 집적화단지가 준공되는 2031년(1단계) 또는 2033년(2단계)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진도가 신안에 버금가는 해상풍력 중심지로 바람연금 지급의 선도시로 거듭나게

제49회 보성 다향 대추제

보성말차! 젊음을 담다, 세계를 담다!

2026. 5. 1. (금) -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차문화행사, 체험행사, 전시/공연, 부대행사 등

- 제49회 보성군민의 날 5. 1. (금) 보성군문화예술회관 기념식, 군민상 시상
-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2. (토) - 5. 4. (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민속·고수 공연대회, 추모제
- 제22회 일림산철쭉문화행사 5. 2. (토) - 5. 4. (월) 용치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 제104회 어린이날 행사 5. 5. (화) 한국차문화공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 제21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2. (토) 보성공설운동장 총. 하프, 10km, 5km

강기정, 동부권 100만도시 위한 10가지 약속 발표

“100명 규모의 의대 조개면 절대 안돼”

“부강한 100만 대도시 만들어 내겠다”



으로 전환 등을 공약했다.

또 전라선 고속화 사업 등 동부권 교통 분야 사업 추진으로 60분 광역교통망 구축, 고흥의 우주산업 및 관광도시화 및 국내 최대 아쿠아팜 수산업 전략기지 구축, 곡성과 구례, 보성의 상징성을 살려 치유관광 산업 벨트로 성장 지원, 광주에서 시작된 생활 복지를 동부권으로 확장 등도 약속했다.

/김병남 기자

6·3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6일 순천시의회에서 ‘전남 동부권 100만 도시를 위한 10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동부권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며 호남의 생산을 책임져 온 경제의 전진기지”라며 “여수 석유화학, 광양의 철강과 항만, 순천의 신산업과 생태관광, 고흥 우주산업, 보성·곡성·구례의 자연환경 및 먹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부권은 50년간 국가와 광주 전남 경제를 위해 헌신했으나, 지금은 되는 것도, 안되는 것도 없고 그저 그런 중소도시권으로 변해 가고 있다”며 “최대 산업 지역인데도 대형 병원 하나 없고, 문화기반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전남광주통합의 목적이 규모의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면 광역 경제권의 성공은 동부권에 있다”며 동부권을 부강한 100만 대도시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00명 규모의 의대와 병원을 절반으로 조개서는 안된다”며 “의대 정원 배분과 부속병원 위치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이에 걸맞는 부속대학병원도 순천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목표는 통합대학본부와 4차 병원을 유치해 부족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도 밝혔다.

강 시장은 광양만과 여수산단의 전력을 위해 ‘무탄소 전력 산단’을 유치를 비롯해 순천에 반도체 생산공장 유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난방공사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전남 동부본부의 ‘산업청사’ 격상, 여수 석유화학의 첨단 화학·무탄소 공정산업